

# 김태형 감독,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김태형 두산 베어스 감독(왼쪽부터), 조성환 조아제약 대표이사, 정운찬 KBO 총재, LA 다저스 류현진, 허구연 해설위원, 이상원 일간스포츠 대표이사, 조성환 조아제약 부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 두산5년 연속KS행...특별상 류현진·배영수 최고감독상, 장정석 전 감독·신인상엔 정우영

김태형 두산 베어스 감독이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형 감독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의 지휘봉을 잡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팀을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려놓았다.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9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V6에

성공했다. 김 감독은 그동안 활약에 힘입어 올 시즌이 끝난 뒤 KBO리그 역대 최고 대우인 3년 총액 28억원에 두산과 재계약했다. 김 감독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감독은 항상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그 동안 나를 지켜봐 준 사장님, 단장님, 선수들 그리고 홍보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상은 류현진(LA 다저스)과 배영수(은퇴)가 받았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린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득표 2위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류현진은 "아프지 않고 한 시즌 마친 것이 가장 감사하다"며 "타지에서 고생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다만 FA 행보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고감독상에는 장정석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 최고코치상에는 최일언 LG 코치가 선정됐다. 2019시즌 키움을 한국시리즈 무대까지 올려놓은 장 전 감독은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라며 "매년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싶

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지도자들이 쾌감을 느낀다. 손혁 신임 감독이 팀을 잘 이끌어 내년도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구원투수에는 하재훈(SK)이 선정됐고 최고투수에는 김광현(SK), 최고타자에는 양의지(NC)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광현은 "내년에 더 잘하는 의미로 이 상을 받아들이겠다"며 "다음에는 류현진 선수가 받은 특별상을 노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인상의 영예는 정우영(LG)이 안았다. 정우영은 "신인상도 받고 팀이 가을아구까지 갔다. 국가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후배 엔트리까진 들었다"며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량발전상은 박세혁(두산)과 문경찬(KIA)이 받았다. 양의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두산의 주전 포수로 자리한 박세혁은 "양의지 선배가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포스트시즌을 잘 치르고 이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KIA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한 문경찬은 올해 54경기에서 1승 2패 24세이브 평균자책점 1.31를 달성하며 '릿문경찬'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문경찬은 "기회가 찾아와서 마무리 투수까지 됐다. 생각보다 운이 잘 따라왔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년은 잘해야 인정 받는다고 한다. 내년도도 잘하는 것이 목표다. 프런티어상은 LG 트윈스가 받았다. LG는 올 시즌 10개 구단 중 100만관중을 돌파한 유일한 구단이었다. 차명석 LG 단장은 "상금 100만원은 사장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회식에 쓰겠다"며 "이번 시즌 성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유공점퍼를 11월초까지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아제약이 직접 선정하는 조아바이톤상은 강백호(KT)와 이정후(키움)에게 돌아갔고 민병현(롯데), 정은원(한화)은 해포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 박인비 vs 박성현, LPGA 2010년대 최고 선수 팬 투표 8강서 맞대결

박인비(31·KB금융그룹)와 박성현(26·솔레어)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팬투표 8강에서 맞붙게 됐다. LPGA투어는 4일(한국시간)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팬투표 1회전에서 박인비와 박성현이 나란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 1순위 시드를 받은 박인비는 미셸 위(미국)와 벌인 1회전에서 팬투표 85%를 획득해 8강에 진출했다. 시드 8번을 얻은 박성현은 9번 시드 유소연(29·메디힐)과 맞붙은 팬투표에서 57%의 지지를 받고 8강에 올랐다. LPGA투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가리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LPGA투어 인터넷 홈

## 발롱도르 '노쇼' 호날두, 이탈리아 시상식 참석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에게 최다 발롱도르 수상 타이틀을 내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발롱도르 시상식 대신 이탈리아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탈리아축구협회는 3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란 갈라 델 카치오 2019'를 열었다. 지난 2018-19시즌 유벤투스의



## 지체된 김광현 포스팅 공시...MLB 추가 자료요청 때문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SK 와이번스 에이스 김광현(31)의 포스팅 공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추가 자료제출 요청 때문이다. 지난 달 22일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도전을 허락한 SK는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료를 넘기며 포스팅 절차를 밟았다. 이후 KBO가 28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공식 포스팅을 요청했

다. 그런데 MLB 사무국 측은 아직까지 공식 포스팅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추가 자료 요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SK 관계자는 "KBO로부터 MLB 측의 추가 자료요청이 왔다고 전해들었다. 이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김광현의 어깨 및 팔꿈치에 대한 MRI, CT 엑스레이 영상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